



(1) 미국의 ILT백신이 네이션 狀況

미국 백신 메이커(maker)에 의한 ILT(전염성 후두기관염) 백신 접종은 點眼에 의한 것을 장려하고 있다. 육성 병아리는 4주령 이후에 행하는 것으로 4주령과 6주령 사이에 하고 제2회째는 계사 이동時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 方法은 노력이 많이 들므로, 다른 관리작업과 관련해서 대개 양계가는 이 같은 指針을 번거롭게 여긴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方法을 이용하게 되는데 접종방법을 바꿀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ILT 백신을 음수투여하면 그 양을 증가하여도 점안보다 예방效果는 떨어진다.

스프레이 方法은 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마이코프라즈마에서 완전히 firee가 아닌 계균은 호흡기장애를 병발하기 쉽다. 점안이라면 이 문제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4주령에서 ILT접종을 1회만하여 1년간 산란기간면역을 충분히 유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ILT의 높은 위험성이 있는 농장에서 育成中인 털에 대하여는 10주와 20주령 경에 2회 접종하는 것이 좋다. 계사수용시 20주령에서 단 1회 점안접종은 만족할 만하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다. ILT백신 점안접종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가벼운 눈물을 흘리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것 등이 있지만 이 같은 반응은 약 3일로서 없어진다.

(2) 미국 가금육수요증가, 난가도보합세

미국의 가금육수요는 요즈음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 소득의 상승경향과 우육공급량이 저조한 때문이라고,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자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매가격은 계란, 칠면조와 같이 우선은 생산비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양계가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사양수수를 늘릴 것으로 보이며, 1978년 후기에는 계란과 부로일러 출하량은 증가될 것이다. 卵價는 1977년 말 뉴욕과 카든에서 65센트에서 68센트로 상승했다. 계절적으로는 50센트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1977년 늦은 여름에는 59센트로 회복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칠면조고기도 전년 수준보다 파운드당 4~6센트 높아졌다.

(3) 캐나다, 미국에의 계란 수출국으로 승인

미국 농무성이 1970년에 미국의 계란검사법을 발효한 이래 캐나다가 미국에 난제품을 수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식품위생써비스국 담당자가 캐나다의 계란검사 시스템을 조사하여 미국 검사기준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후 캐나다의 양계 처리장에 대하여 계란생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승인해 준 것이다.

계란 및 가공란 검사목적은 소비자에게 위생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 이 법률은 상대국의 계란검사법이 미국의 검사법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계란공장이 미국 농무성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정부가 검사하고 있는

경우만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단서가 붙여져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국의 양계 산업에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속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법률과는 개별 분야로 되어진 것이다.

(4) 영국, 부로일러의 케이지 육성이 증가하는 경향.

금후 10년 이내에 영국의 부로일러 생산은 평사 사육보다도 케이지 사육이 증가하리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영국 싸포우크에 있는 양계 기계 maker인 크리스티·에크아프 엔토社 리차아드슈로프샤씨의 견해이다

케이지 육성의 부로일러는 흥부수종 때문에 이제까지는 부적당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생산 코스트의 절하, 사료 효율 개선, 케이지 기구의改善, 改良이 진전됨에 따라, 育成方式도 번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부로일러 산업은 세계에서도 효율이 높은 수준에 있지만 이익은 적었다. 그래서 수용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만 종래의 푸사육으로 무리이다. 그러나 케이지에서라면 단위면적당 2배는 기를 수 있다. 이 회사는 부로일러 마켓크라고 칭하는 4단 케이지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부로일러의 케이지 育成은 영국 업계에 있어 커다란 혁명으로 사료비가 크게 절약된다.

혹시 들판의 필요가 없고, 사료 손실이 감소된다. 입추, 관리, 판매, 소득의 노력이 적게 들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다. 이러한 케이지 育成은 영국 부로일러 산업계의 장래의 방법으로서 기대할 만 하리라고 한다.

(5) 헝가리의 양계, 수출중점 소규모 양계 보호.

헝가리의 가금 산업은 국영농장, 집단농장 및 소규모 양계가의 노력으로 1976년에는

전년보다 10%의 생산증가를 이루었다. 가금육 생산량 중 14만1,000톤이 국영 시장에서 출하되었으며, 나머지 15만9,000톤은 지방의 시장에서 출하되었다. 14만1,000톤 중 10만3,000톤은 수출로 돌려졌다.

헝가리는 가금육 수출의욕이 왕성하여 南歐, 소련, 中東, 極東에 주로 출하하고 있다. 중동 쪽은 소량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同國의 옥수수는 前年보다 흉작이었으며 豚 사료로도 되기 때문에 축산의 불안요소이다. 계란 생산은 1976년에는 과거 4년간에 걸쳐 처음으로 줄어들었지만 1977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정부는 계란을 매상하고 이것을 수출하고 있다. 헝가리의 양계 생산물의 약40%는 개인농가에 의한 생산이다. 개인 농가는 정부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인접국의 양계가와 같은 수준으로 경영이 이루어져 있다. 헝가리 정부는 보조금을 통하여 농가의 부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생산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난점은 당면 문제로 남아있다.

(6) 이스라엘도 미국에의 가금육 수출국으로

이스라엘은 가금육을 비로소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요즘 미국 정부로부터 그 승인을 얻었으며, 캐나다와 똑같은 허가국으로 되었다. 이스라엘의 처리장은 미국의 위생기준에 합치해 있으며 미국 담당관은 예고없이 이스라엘의 처리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가금처리장은 철면조와 거위 간장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프랑스에도 수출되고 있다. 또 이 공장의 產物은 EC에도 수출되며 서독에는 그대로 있다.

(7) 브라질의 사료자원, 양계발전에 유리 아라비아, 페르시아 지역은 양계 生產物이

젊음과 땀과 신용으로

세계 第三의 시장으로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여 지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하여 미국 등과 똑같이 브라질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1977년 브라질은 가금육을 불과 28만 8,000 톤 수출에 지나지 않았지만, 1978년에는倍量을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당초의 매입은 별것 아니었었지만, 그것이 최근은 급격히 변해갔다. 이 나라의 부로 일려 산업은 歐州보다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를테면 브라질은 대두의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양계사료로서의 대두가격은 歐州가 보다도 훨씬싸다. 브라질은 원료의 국내 수송거리도 짧아 쉽기 때문에 사료 원료는 값이 싸다.

수년 전에는 브라질의 가금육 量에 대하여 歐州와 비교한 데이터는 없었다. 오늘날 같이 발전하리라는 예측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또 하나의 利點은 生產 cost다. 싸기 때문에 제품의 수출가격도 싸게 할 수 있다.

가금육의 수송비는 고cost의 요인이 되는데 브라질 정부는 여기에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적인 회사가 이 수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歐州의 생산자는 중동시장에 있어서 숨은 경쟁상대로 브라질을 잘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 모두 poultry International誌에서)

아직도 양계경영일지없이 양계를 하시고 계십니까?

절찬리 판매중!

양계경영일지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육용계용, 산란계용을 명기해 주시고 회원 300원 비회원 350원의 가격대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봉사해드립니다.

동두천가축약품상사

취급품목

- * 가축예방약
- * 치료제
- * 소독약
- * 사료첨가제
- * 기타국내외 약품

정왕모·안영숙

전화(동두천) 2704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 2리 698